

☆ 서사문학을 알게되면

독학 재수생을 위한

국어 단기간에 끝내기 반 (화목반) 모집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4개월입니다. 4개월에 모두 1등급 달성입니다.

국어 3~5등급 학생들은 주 1회 수업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수업을 합니다. 화, 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주 1회 사설 모의고사 봅니다.

혹시라도 주 1회가 필요한 학생은 금요일 모집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점심 먹고 모의고사 보고 갑니다.

개강 : 4월 21일/23일/24일 오전 11시...

국어 3-5등급을 위한 주말반 개강합니다.

토요일 10시 ~2시 20분 (3시간 수업 + 80분 모의고사) = 마감

일요일 10시 ~2시 20분 (3시간 수업 + 80분 모의고사) = 모집중

일요일 개강 4월 12일 오전 10시

국어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문의바람...!!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③ 번째] **소설 문학 분석**으로 다가갑니다.

이 소설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폰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늘 해도 해도 안 되는 국어 때문에 고민 있고 괴로운 친구는 이왕이면 비문학, 시문학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효과가 큼니다. !!

자 들어갑니다. 소설은 간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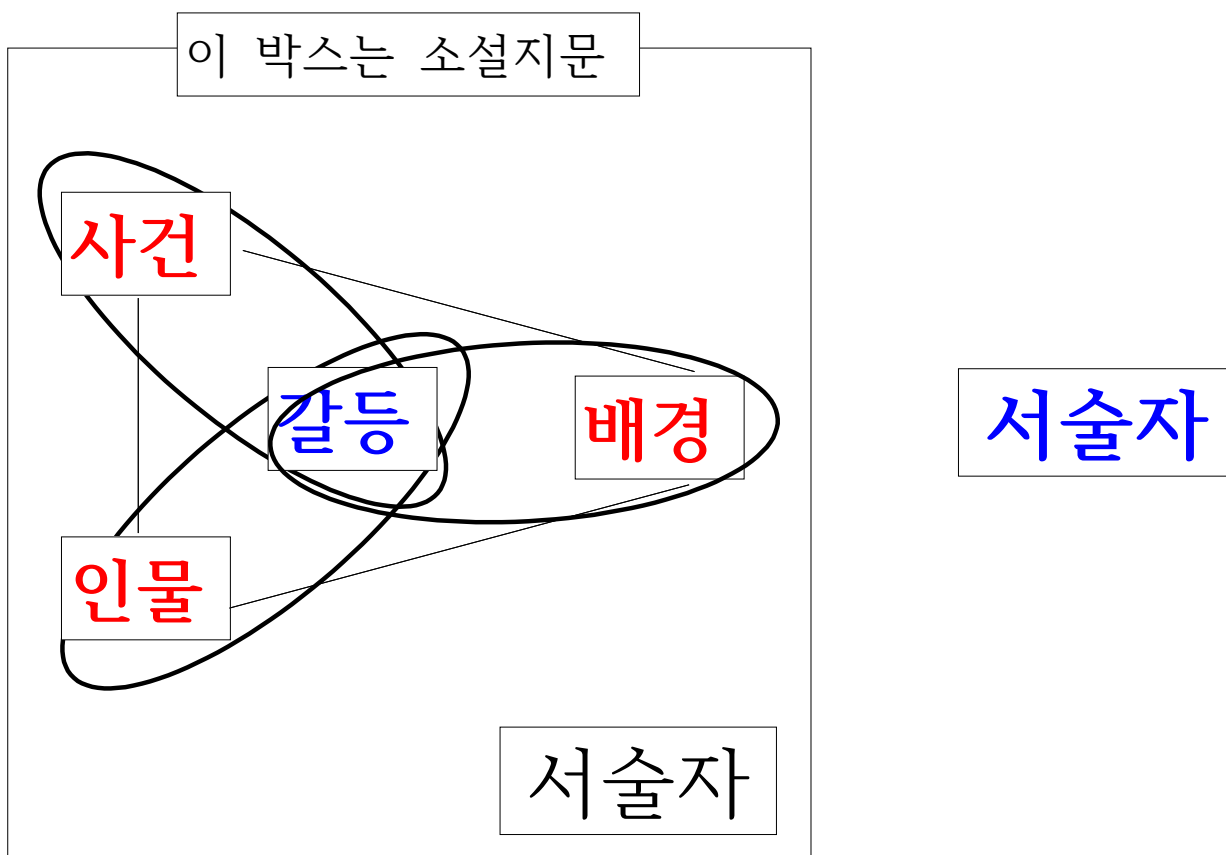
자 지난번 소설문학 칼럼에서

서사 = 사건을 서술한 글이고

= 사건은 반드시 인물이 일으키는 것이며

=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물과 배경이 있다...



=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소설 지문 속에는 바로 저 위에 있는 그림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 거기다가 서술자의 시점만 더 공부하면 되는데 ... 그것은 생략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설을 그냥 외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 눈뜨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배경지식, 분석노트...이런 것에 의존하면서 소설 공부하는 친구들은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세요....

4-5-6-7등급은 눈 아주 크게 뜨고 입 크게 벌리면서 큰 소리로 따라 외치면서 읽고 또 읽고 메모도 하세요..... 그래야 .. 그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

수업 버전으로 합니다. 반드시 ❶❷를 읽고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고전소설 2015년 기출 B형 속향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신 후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설의 상위개념은 서사입니다.

다.

㉠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 객회(客懷)를 자아내니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거늘 숙향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꽃봉오리를 먹으니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 진동하더라.

= 자 애들아... 썩판 모르는 소설을 만나면 뭘 찾는다...?

= 네...!! 서사의 3요소를 찾습니다.

= 서사의 3요소는 뭐지 ?

= 그것은 인물, 사건, 배경이고 그 속에는 갈등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요소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 오케이...!!

1-3줄 : 숙향이라는 인물이 등장, 그리고 숲속이라는 배경

3-5줄 :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 배경 등장... (전기적요소)

====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른 인물이 없으니 인물간의 갈등도 없는 것이고 아직 배경과 갈등은 보이지 않으니... 그냥 갑시다....

일어나서 ㉡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에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한 계집이 마중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가 큰 전각(殿閣) 앞에 놓으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황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숙향을 맞아 팔을 밀어 동편 백옥 의자에 앉기를 청하거늘 숙향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다만 울 뿐이었다.

1-3줄 : 숙향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배경이 제시됩니다.

= 이거 정도는 선생님처럼 할 수 있지요 ? ...

3-7줄 : 계집이 나오지만 숙향을 안고 갈 뿐...갈등은 없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나오는데 이 부인과의 갈등 없고, 그저 숙향이는 울 뿐이다.

==== 자 지금까지 오는데 힘듭니까 ? 그저 서사의 3요소 찾으면서 오고 있죠 ?... 그저 여기까지 인물, 여기까지 배경..... 이것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모르겠습니다.

==== 지금까지 배경이 좀 독특합니다. 현실에서 보기 힘든... 그래서 비현실적(전기적) 요소... 뭐 솔직히 ... 이거밖에는 없네요...

부인 왈,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르나이다.”

선녀에게 명해 경액(瓊液)*을 드리라 한대 선녀가 만호잔에 호박대를 받쳐 이슬 같은 것을 부어 드리거늘 숙향이 받아먹으니 맛은 젓맛 같고 매우 향기롭더라. ㉔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즉시 일어나 부인에게 예를 표해 왈,

1-3줄 : 부인이 숙향에게 선녀라고 부르며 친절하게 대함...ㅋㅋ

4-6줄 : 웬 선녀 나오고 3류 영화처럼 이슬 마시고 ...ㅋㅋ

6-끝줄 : 이슬 마시고 상당히 긴 시간이 아주 짧게 서술되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뭐였죠 ? ... 요약적 서술입니다....

==== 아직도 갈등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숙향이가 여기 오기 전에 힘들었던 것.... 그런데 그것은 지문 이전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소설은 아직 갈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첩은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A] 심하거든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대접하시니 지극히 감격
하나이다.”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사오니 자세히 아옵지 못하나이다.”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며 접때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 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

“다 보았사오나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시비나 되어 만분지일이나 갚사올까 바라나이다.”

===== 부인과 숙향이 서로 대화만 나눌 뿐.... 이 정도 얘기는 여러분이 파악해도 됨.... 은혜에 대해 고마워하고 은근히 자기가 많이 도와준 거 아냐?...하면서 확인하고....

===== 아직 갈등없습니다. 그러니 사건도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B]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시나이까? 선녀가 실 곳이 또한 머오니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
오매 쉬어 내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환대하니 음식과 보배 등이 극히 화려하더라.

= 부인이 자기 정체 말하고 숙향의 전신 말하고... 힘들었을테니 쉬어가랍니다. 아... 이게 정녕 수능 B형이란 말인가? 그것도 고전 소설이란 말인가?.....

= 어떤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 “선생님, 어떡하죠?..... 저는 고전 소설을 하나도 준비 못했어요?.... 원문으로 나오는 것도 두렵고 또 해석도 안 될 거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 = “고전 소설이 고전 원문으로 나오니 ?
- = “선생님 장난하세요 ?... 저는 한자만 나와도 미치겠어요. 해석도 안 되고...”
- = 왜 소설을 해석하니 ?... 그리고 인물 찾고 갈등, 사건, 배경 찾는 데 왜 한자 해석이 필요하니 ?...난 네가 더 걱정스럽다....
- = 23년간 수능 고전소설에서 원문으로 나온 소설도 없고, 있다 해도 네가 찾아야 하는 부분에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단다....
- =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 대부분...현대소설도 준비 안 된 아이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B형 고전소설입니다. 해석이 참 안 됩니까 ?..... 인물 찾고 사건, 배경 찾는 게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까 ?.... 그래서 배경지식을 쌓아야 해결된다고 봅니까 ?

숙향이 부인에게 왈,
 “첩이 전일 듣사오니 명사계는 시왕(十王)이 계신 데라 하더니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여이다.”
 “그러하오면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멀지 아니하오이다.”

“인간 세상의 부모가 난중에 죽었으면 시왕전에 왔사울 것
 이니 반가이 만나 볼 수 있겠나이까?”
 [C] “그대 부모는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
 상에 귀양 왔사오니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중략)

- = 계속 대화일 뿐입니다. 대화를 통해 부인이 숙향에게 인간세상의 부모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냥 갑시다... 여러분 !!
- = 중략이 나오죠 ?... 그러면 이 소설은 최소한 사건 몇 개 ? 지난 시

간에 얘기했습니다. 사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중략 전, 중략, 중략 이후.... 이렇게요...

이선이 숙향이 보내 온 혈서를 보고 크게 놀라 통곡하고 그 편지를 숙모께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 하더니 숙부인 왈,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마라.”

하며 하인을 불러 할미 집에 가 보고 오라 하고, 그 고을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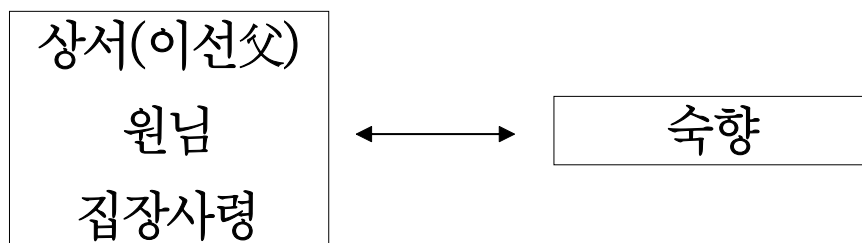
“㉔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 고로 원님이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썬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 전혀 다른 인물,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사건이 진행될 겁니다.

= 이선이라는 인물 등장, 숙향, 숙모...이렇게 세명 나옵니다.

1-3줄 : 숙향이 혈서를 보낼 정도이니 숙향에게 어떤 갈등, 어떤 사건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선이 같이 죽으려 하는 것을 보니 이선도 숙향 편입니다. 그리고 이선은 숙모에게...

4-끝줄 : 숙모가 진상 파악...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정확한 인물들간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 그림에서 보듯이 갈등 상황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상서는 이선의 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될 인물입니다..... **이정도까지 파악되죠 ?....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숙부인이 듣고 크게 놀라 왈,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자로 들였으며 선과 숙향이 혼사를 치르도록 했거늘,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부라 업신여겨 이러하니 내 황성에 들어가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

하고 즉시 행장을 차려서 장안으로 가니라.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

- = 숙모는 숙모대로 상서와 갈등이 생깁니다. 과부라고 자기를 무시했다.... 그래서 사건을 예약합니다. 말을 안들으면 황후에게 끈지르고 (ㅋㅋ) 나중에 황제가 알도록.... 고하리라...
- = 이선이는 좀 때론 쓰는 인물이네요....
- = 여기까지 여러분... 숙향전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한가요 ?....그냥 갑시다... 시간 없습니다.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 하니 이때 낭자가 옥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받은 죽은 사람이라. 이를 보는 사람이 눈물 아니 짓는 이가 없더라.

- = 쉽게 말하면 김전과 숙향은 반대 세력이죠... 갈등관계이고 사건관계 속의 인물입니다.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맞으니까...
- = 밑줄 친 부분은 김전이 하는 말인가요 ? ... 아니면 숙향이 큰 칼을 쓰고 가면서 하는 소리인가요 ?.... 현재 두 사람밖에 없는데 제 3의 목소리가 나왔죠 ?.... 이게 바로 작가가 개입한 것입니다.
- = 밑줄 다음 줄도 숙향이 근엄하게 말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주 우습죠 ?.... 그렇다고 김전이?... 더 웃기죠... 작가개입입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2분 30초-3분 05초를 통해 읽었다면 이제 문제로 갑시다... 더 머물러봤자... 속향전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시간만 낭비될 뿐.....

문제 풀기 전에 다시 워밍업... 복습하고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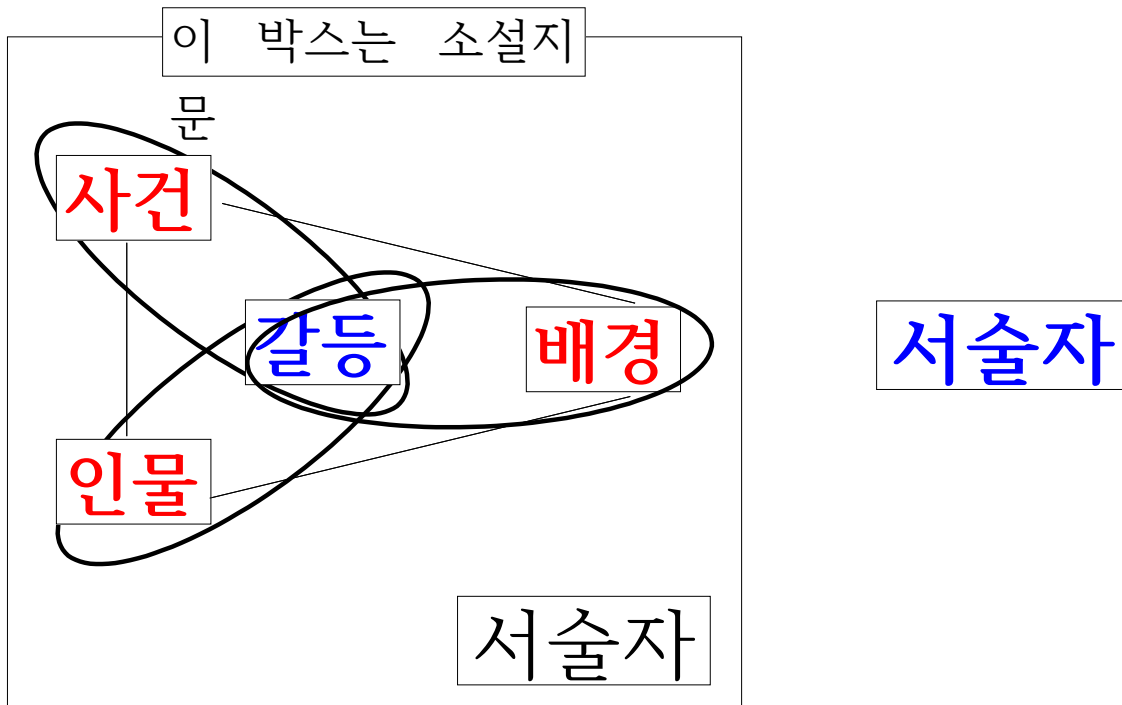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서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서사 = 사건을 서술한 글이고

= 사건은 반드시 인물이 일으키는 것이며

=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물과 배경이 있다...



= 저 지문속의 내용을 가지고 출제자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 무엇을 출제하는 지 살펴보고 갑시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서사문학 답게 인물을 물어보죠 ?....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2가지라고 했죠...지난 시간에...

그리고 전문가나 독자 5명이 나와서 자기가 각 인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말할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OX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 OX문제는 끊어 읽으면 된다고 했죠 ?..... 자 봅시다...

① '후토 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 '후토 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

--> 후토부인에 대해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끊었을 때 0 입니다.

=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 여기까지 또 0 입니다. 제대로 후토부인에 대해 이해했음.

②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

--> 이선을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0

=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 당연히 0

=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죠 ?

③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

--> 숙부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0

=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

--> 말을 안 듣는 이상서를 황후와 황제께 끈지름(ㅋㅋ)

--> 그냥 이렇게 OX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④ ‘김전’은 ‘장 씨’의 말을 수용하여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고 있다.
- ⑤ ‘장 씨’는 ‘숙향’을 보고서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숙향’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이걸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 역시 서사문학답게 서사의 3요소 중에서 인물을 물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또 이해 문제입니다. 이해는 독자문제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독자가 ㉠~㉣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또 5명 나옵니다. 그네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옆에 있다가 또 OX 문제입니다. OX 문제 어떻게 풀다고 ?.... 끊어 읽으면서 풀다....
- = 저 다섯가지 ㉠~㉣이 무엇일까요 ? 여러분... 아마도 서사의 3요소에다가 갈등과 서술자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까 ... 싶네요....

① ㉠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역시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냥 갑시다... 0입니다.

② ㉡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이것도 배경입니다. 비현실적 공간...

③ ㉔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서술자의 인물제시방식 ... 직접제시입니다.

④ ㉕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발화는 입으로 말한다는 말입니다. 서술자의 사건제시방식을 물어봅니다.

⑤ ㉖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㉖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

--> 끌려가는 모습과 큰 칼을 쓴 모습은 0입니다.

=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그것은 인물의 심리가 아니라 작가가 개입하여 자기 생각을 적은 부분입니다. 등장인물의 심리가 아닙니다. 답입니다.

===== 역시 서술자의 서술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3점짜리 전부 다 맞을 수 있는 절대구조 지난번에 설명했으니 이번에는 설명 안합니다. 여러번 설명했습니다. 앞에 파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문학과 소설문학.....

<보 기>

고전 소설 중에는 '천상'과 '선계'를 포함하는 '천상계'와 인간 세상인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다. 이 원리는 '천상계 - 지상계 - 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벌과 보상,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

= ① [A]에는 // 윗문제의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부로 나옵니다. 당연히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0 입니다.

=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이 부분은 바로 조건 부분... 보기 박스에 나와야 하는 내용입니다. 4-5줄에 나옵니다. 역시 0 입니다.

= ② [B]에는 // 위와 같음..

=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이 부분이 보기 박스에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 이렇게 하나 하나 끊어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답임...

= ③ [B]에는 //

=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보기 박스 5-6줄...

= ④ [C]에는 //

=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2줄, 5-6줄, 마지막 줄을 통해...

= ⑤ [C]에는 //

=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본문에도 나오고 보기 박스 끝줄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도 가볍게 소설 한편 분석해 봤습니다.

더러는 사람들이 그룹니다....

설마... 아직도... 그룹니다. 그렇게 많은 칼럼들을 통해 같이 분석을 했으면서도아직도 설마 설마 그럴려고..... 그룹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어 등급이 낮은 것입니다. 본인의 고정된 틀이 모두 다 옳다는 편견... 그것이 최대의 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